

광주 제조업 봄 오나...체감경기 2년만에 기준치 회복

광주상의 조사, 2분기 전망 BSI '101' 기록...2021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도체 호황·백색가전 내외수 증대 영향...국제 경기 회복 등 전망 밝아

지역 제조기업들의 올 2분기 기업경기전망 지수가 10분기 만에 긍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아직 제조업체들의 실적 회복은 더딘 상황이지만, 성수기인 계절적 요인에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도 긍정적인 경기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

치가 '101'을 기록했다. 전 분기(2024년 1분기) 보다 무려 3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무엇보다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SI 전망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BSI 전망치가 100을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4분기(113) 이후 처음이다. 광주지역 제조업체 BSI

전망치는 지난 2021년 4분기 113을 이후로 2022년 1분기 92→2분기 99→3분기 75→4분기 85→2023년 1분기 72→2분기 92→3분기 88→4분기 88→2024년 1분기 68 이었다.

매년 2분기는 연중 BSI 전망치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긍정으로 전환된 데에는 국제 경기 회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부품(90)과 화학·고무·플라스틱(86), 기계·금형(72)을 제외한 IT·가전(110), 철강·금속가공(106), 유리·시멘트·콘크리트(138), 식음료(120) 등 대부분 분야에서 100을 웃도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특히 IT·가전은 전 분기 43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산업 호황과 백색가전의 내외수 증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사한 경기전망지수에서도 이달 수출전망은 101.3으로 긍정으로 돌아섰고 전달(89.7)에 견줘서도 크게 올랐다. 이밖에 낮은 수출 긍정적 것을 의미하는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도 전달보다 0.3포인트 감소한 91.9를 기록했다.

다만 광주상의가 지역 제조업체들의 BSI 전망치를 경영향목별로 살펴봤을 때, '매출액' (103)을 제외한 '영업이익' (88), '설비투자' (93), '자금사정' (78) 전망은 전 분기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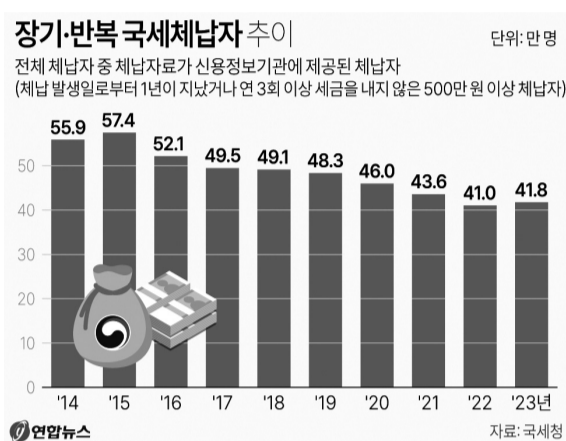
실제 올 1분기 지역 제조업체들의 BSI 실적은 63을 기록했다. 전 분기(2023년 4분기) 기록한 68보다도 낮았다.

올 1분기 실적부진에도 대부분 제조기업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이며, 대·중견기업은 전 분기보다 6포인트 증가한 BSI 전망치 94, 중소기업은 37포인트 증가한 102를 기록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적 불안 요인들이 잔존해 있다"며 "경기부양책과 정책자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금 못내 신용 '뚝'...장기·반복채납자 8년만에 다시 늘어

지자체 체납자 41만7632명 '정리보류'도 3년만에 증가



세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채납 정보가 제공된다.

전체 채납자 증가세에도 신용기관 통지 채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다. 장기·반복 채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채납을 중심으로 채납자와 채납액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누계 채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채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채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채납자(133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용기관 통지 채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400억원 늘어난 74조8000억원이었다. 전체 누계 채납액의 70.4% 수준이다. 지난해 누계 채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다시 늘어난 점도 채납자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리보류' 금액은 채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채납액을 뜻한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000억원으로 전년(86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채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을 하회했지만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다. /장윤영 기자 zzang@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채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작년 반도체발 불황,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채납의 양과 질 모두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채납자는 133만7000명, 채납액은 106조6000억원이었다. 채납자 수와 채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채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채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지 채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채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채납자는 국

농협은행 광주본부, 광주교육사랑카드 제휴기금 전달



5억 2900여만원 적립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1일 광주시교육청을 찾아 '광주교육사랑카드' 제휴 적립기금 5억 29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교육사랑카드'는 광주지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 발급되는 농협은행 신용카드 상품으로, 농협은행 광주본부와 광주시교육청이 2004년 체결한 '교육사랑카드 제휴 계약'에 따라 해당 카

드 사용금액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된다.

적립된 기금은 광주시교육청에 전달돼 교육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달된 기금은 2023년 광주교육사랑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장학금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충전카드 발급 시 5000원" '삼성월렛' 1020 프로모션



학생들이 CU 편의점에서 삼성월렛으로 멤버십을 적립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10대·20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만 14~19세 이용자가 6월 30일까지 삼성월렛에서 '삼성페이 충전카드'를 발급하면 5천원을 즉시 충전해준다. 또 만 7~16세가 발급할 수 있는 '토스 유스카드'를 삼성월렛에 등록하면 4월 한 달간 최초 1회에 한해 토스머니 2천원을 지급한다.

씨유(CU) 편의점과 삼각김밥 할인·롤렛 이벤트도 진행하며, 삼성월렛 '선물하기' 메뉴에서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교환권을 선착순 1만 명에게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청렴 향상 워크숍 성료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지난달 29일 '2024년 영·섬유역본부 업무담당자 청렴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각 부서 직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렴의 의미 변화와 고객이 바라는 청렴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으며 계속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영·섬유역본부는 유역 내 청렴 향상 활동을 담은 청렴카드뉴스를 제작해 고객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의 소통도 시작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코스피	2747.86 (+1.23)
↑ 코스닥	912.45 (+6.95)
↓ 금리(국고채 3년)	3.291 (-0.031)
↑ 환율(USD)	1349.40 (+2.20)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